

여성 시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박영민 여성 한시 문학사 서술을 위한 제언

이경수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고찰

여성 한시 문학사 서술을 위한 제언

박영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 1 왜 문학사에서 여성 작가의 한시를 주목하는가?
- 2 여성작가의 시문집 발굴과 텍스트 비평
- 3 여성의 문필활동과 형식적 특징
- 4 여성 작가의 계층적 성격
- 5 마무리

지난 20세기 말 우리문화의 주변부에서 점점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여성주의적 시각은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장에서 그때의 문제제기가 얼마나 유효한 것이었던가를 선명하게 검증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의 자료를 섭렵하고 진지하게 여성, 젠더 연구 방법론을 탐색하는 연구자는 소수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 분야도 고전문학, 한문학계의 몇몇 범주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한시의 연구는 소설, 규방가사, 시조 등 다른 장르의 연구에 비해 그 외연이 더욱 왜소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한시 연구에서는 여성작가의 한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별로 효과적인, 생산적인 연구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작가의 한시가 남성작가의 작품에 비해 그 양에서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한시의 의의는 현전하는 양의 다소에 의해 가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시는 중세의 주체들이 문필로 자신의 정감과 사유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선택한 장르이다. 그래서 한시에는 중세라는 시공간 속을 살다간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풍요롭게 드러난다. 여성의 역사와 그 전통에 대한 인식을 보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여성들의 삶과 내면의식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성작가의 한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대상이 된다. 여성작가 한시의 연구에서 나아가 여성 작가 한시 문학사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복원, 그리고 여성문학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국문핵심어: 여성 한시, 문학사, 여성문집, 텍스트비평, 시화, 비평

1 왜 문학사에서 여성 작가의 한시를 주목하는가?

지난 20세기 말 우리문화의 주변부에서 점점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여성주의적 시각은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장에서 그때의 문제제기가 얼마나 유효한 것이었던가를 선명하게 검증받고 있다. 한국 고전문학·한문학 분야도 이러한 현실 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구의 범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고전여성문학회’를 창립하고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여성 관련 문학작품과 자료를 탐색하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문학계의 주류 학회에서도 여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문학계에서 진지하게 젠더 연구 방법론을 탐색하는 연구자가 극히 소수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혹은 젠더에 관심이 있다하여도 여성작가 혹은 여성작가의 작품에 국한하여 사유하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특히 여성작가 한시의 연구는 소설, 가사, 시조 등 다른 고전문학 장르에 비해서도 연구의 외연이 왜소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한시 연구에서는 여성작가의 한시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¹ 한시의 전모나 한시의 실상을 고려한다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생산적이지 않은 연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의 표면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한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사대부 혹은 남성작가의 작품의 양이 무수하게 남아 있는데 비해, 여성작가의 한시는 양적 규모가 왜소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시는 한자로 쓰여진 시이다. 한시는 능숙하게 쓰기까지 오랜 학습과 수련이 요구되는 한자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장르이다. 더구나 한시에는 평측, 압운, 율시, 절구, 배율 등의 고유 형식이 있다. 한시의 수준을 평가할 때에는 이 평측, 압운을 위시하여 고유 형식을 얼마나 잘 구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고유 형식을 익히는 데에도 상당한 학습과 수련이 요구된다. 또 한문문학이 그렇듯이 한시도 이백, 두보, 도연명, 소동파 등 중국의 저명 시인들을 전범으로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어, 시상을 구사할 때에 까다로운 전고, 수사를 얼마나 잘 구사하였는가를 중요한 평가

1 안대회, 「한시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제64호, 2016, 31-57쪽에서 “그동안 한시사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지 못하고 다양성이나 깊이, 자료 이용의 측면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조선중기 이후의 한시사 서술에서 그 점이 두드러져 작가가 폭증하고 문집의 편찬이 늘어나면서 시의 갈래나 주제 소재가 다변화된 현상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학담당층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사대부 작가에 서술이 집중되었다. 여항인이나 서류층 작가 등 군소작가와 승려 시인 및 여성 시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소수자문학은 서술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자료의 정리와 최근 연구물도 풍성하게 제출되었다.”고 하였다.

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과 연결된다. 따라서 한시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한자 학습과 수련뿐만 아니라 한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 및 지식을 학습하고 수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시의 대두는 신라시대의 6두품 문인처럼 한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계층의 대두부터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시는 문인 지식층의 자기표현, 귀족 및 사대부의 신분적 위신 확인, 그리고 그 계층 내부의 교유에 필수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조선시대까지의 여성은 교육과 학습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었고 한시 교육과 학습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작가의 한시는 남성작가의 한시에 비해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였다.

그리고 이 양적 규모의 왜소함이 곧바로 작품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설령 여성이 한시를 짓는다고 하여도 부단한 학습과 수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시가 요구하는 형식을 고도로 수행하는 창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어려웠다. 조선시대에도 한시선집을 편찬할 때에 여성작가 한시를 뽑고, 비평을 할 때에 여성작가 한시를 칭찬하는 문인들이 있었지만 여성이 한시를 지었다는 점을 기특하게 여기는 뜻으로 관대하게 평가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²

때로는 남성작가가 정치, 경제, 사상 즉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담론과 긴밀하게 연계된 자리에서 한시 창작을 한 반면 여성작가는 지극히 사적이고 미시적인 영역과 연계된 자리에서 한시 창작을 하였기에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주제가 미미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시의 세계에서 여성의 한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한시의 전모와 그 성취를 축소시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 연구 역량을 왜소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한시를 구분하여 여성작가한시사를 서술하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분명한 접근법이다.³

여성작가의 한시가 남성작가의 작품에 비해 그 양에서 비교할 수 없이 현저

2 여성작가의 한시를 무조건 긍정하는 비평 경향도 있었다. 여성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이 한시를 지었다는 점만 환호하는 태도 역시 여성작가의 한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평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가 여성의 문학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한시의 의의는 현전하는 양의 다소에 의해 가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시는 중세의 주체들이 문필로 자신의 정감과 사유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선택한 장르이다. 그래서 한시에는 중세라는 시공간 속을 살다간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풍요롭게 드러난다. 이규보, 서거정 등 몇 천 수의 한시를 남긴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황이나 이언적 등 성리학자들의 작품을 살펴봐도 그들이 한시로 자신들의 일상의 정감과 사상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시는 특이한 사유나 이질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작가의 자기 표현, 생활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세의 한시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의 삶에 대한 이해는 당대 주류적 신분과 지위를 점유하였던 사대부뿐만 아니라 주변인,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이해를 통해 더욱 역동적, 입체적으로 잘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작가의 한시를 다룬다면, 여성을 포함한 한 사회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와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과도기를 살고 있다. 특히 그 도전의 한 가운데에 남성과 여성, 가부장제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과 도전에 직면하면서 현대인들은 늘 그 근원으로 조선시대를 운위하였다. 그 결과 여성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전통은 터부시되어야 할 것, 극복되어야 할 것 등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초창기 조선시대의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열등감의 역사가 강조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여성의 피해의식을 증폭시켜 왔고 그 인식의 이면에서는 암묵적으로 남성의 가해의식을 낳기도 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성의 역사를 버려야 할 전통으로 강조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중세를 살았던 여성 주체가 자신들의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하였던가를 파악해보면 여성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사실(史實)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3 한문학사에서 여성한문학사를 분리하여 서술하는 일의 한계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박무영의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제28호, 2005, 79-118쪽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한 반성 때문일까? 최근에는 조선시대의 여성의 역사에 대한 긍정의 시선이 낭만적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한편 한시 고유의 형식을 고수하여야 좋은 한시, 잘 쓴 한시로 평가한다면 여성작가 한시는 이 기준에서 미달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 고유의 형식을 벗어나 변격, 파격을 창출하는 작가와 작품의 의의를 한시사의 곳곳에서 보아왔다. 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한시 고유의 평측, 압운 등의 고유 형식을 작품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하더라도 현재의 우리 역시 반드시 이 기준을 한시 평가에 적용하여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여성작가가 학습과 수련을 거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한시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조선시대에 여성 작가의 한시가 어떠한 문학 환경 위에서 어떻게 창작되고 수용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들이 생산한 한시가 남성 작가의 한시와 비교하여 어떠하였던가를 찾아서 말하는 것이 한시, 문학, 여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한시의 형식을 치밀하게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한시를 선택한 여성, 여성과 한시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이 시기 한시, 여성, 여성작가한시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된다.

그렇다면 한시사에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를 구분하여 여성작가한시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시를 이해하고 문학을 이해하고 여성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여성작가 한시 문학사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복원, 그리고 여성의 문학과 한시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2 여성작가의 시문집 발굴과 텍스트 비평

조선시대의 여성의 일상과 예술, 여성을 둘러싼 제도와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들의 사상, 정감을 스스로 표출한 자료가 중요하다. 중세를 살다 간 여성 주체가 당대의 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그 내면 의식을 직접 표출한 자료로는 한시가 가장 풍부하다. 특히 여성이 한시를 통

해 직접 들려주는 그들의 삶과 내면세계는 여성이 계급적, 성적 타자로서 어떻게 현실과 대면하였는지, 그들의 욕망과 꿈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한시 문집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여성의 한시집은 19세기에 존재했던 여성이 남긴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생존했던 부안 기생 매창(1573~1610)의 『매창집(梅窓集)』부터 20세기 초에 생존했던 이구소(1894~1992)의 『봉선화(鳳仙花)』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의 여성 한시집이 거의 없는 상황은 이 시기의 여성작가의 한시사를 서술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문집을 남기지 못한 여성의 한시는 대부분 회자되어 전해졌다. 주변 인물을 통해 회자되다가 시화집, 시선집, 야담, 소총 등으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작품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하여 조선전기까지의 여성작가의 한시사는 시화, 시선, 사대부의 문집 등을 통해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화나 시선 등에 등장하는 여성의 한시는 대부분 남성 편저자의 시선과 담론화의 과정을 거쳐 취사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조선전기까지의 여성작가의 한시의 특징은 ‘누가 전하였나, 무엇을 전하였는가’에 따라 거의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작가의 한시의 전래는 조선시대의 여성 제도가 사대부의 지배 담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현실과 궤를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시뿐만이 아니다. 야담이나 소설 등 산문 장르에 등장하는 여성 역시 허구와 현실의 복합적 산물이면서 특정 작가 또는 독서대중의 욕망이 투영된 가공적 이미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여성의 삶과 한시를 논하는 데에 그친다면 이미 담론화 과정을 거쳐 형상화된 이차 자료를 통해 대상을 고찰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조선전기까지의 여성의 한시를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문집이나 기타 자료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 한시 연구가 주로 시화나 시선, 야담이나 잡록 등의 기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이때에도 지금까지의 여성 한시 연구가 대부분 남성의 담론 내부에 포획된 작품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텍스트 비평과 함께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을 읽어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중기 이후 문집을 남긴 여성작가의 한시를 직접 강독함으로써 여성작가의 언어와 정감을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쁨과 동시에 텍스트 비평을 통해 여성작가의 한시를 세심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도 각종 시화집, 시선집, 사대부의 문집 등을 통해 그 詩名을 남긴 여성의 수는 매우 많지만 우리가 시문집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여성 한시 작가는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⁴

기생의 시문집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로는 먼저, 기생에게는 그들의 작품을 모으고 편찬하여 전해줄 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생 작가들은 자식을 남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시를 인정하여 문집으로 남겨줄 만한 이를 만나기도 힘들었다. 간혹 매창, 담운, 운초처럼 고을 아전들이나 정인(情人)에 의해 문집이 편찬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생의 시문집은 사대부가 여성의 시문집과 비교하여도 매우 소략하게 남아 있다. 사대부가 부녀자들의 경우, 집안사람들에 의해 ‘현모양처의 직분을 충실히 하면서도 한시를 창작할 줄 알았다’는 근거에서 한시가 긍정되고 강조되었던데 비해 기생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기생의 한시가 문집의 형태로 많이 남지 못한 이유가 된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사회의 최하층 천민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가 규방의 여성들이 능히 시부(詩賦)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절로 연원이 있으나 천창(賤娼)과 얼현(孽玄)이 능히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더욱 기이(奇異)하다 할만하다”⁵고도 하여 조선시대의 교과서류의 연표와는 대가 되는 기생의 한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사대부가 여성의 작품이 많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적 사유에 맞는 역할을 실천하면서도 한시 창작을 겸비하여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받은 여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제나 집안사람들이 여성의 한시를 기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는 현재 전해지는 사대부가 부녀자의 작품의 성격의 한 국면을 설명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대부가 문 여성의 한시 창작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과 그 내부의 실제 사이의 거리를 매우 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과 일화가 필요했다. 그 근거에는 어김없이 여성이 여성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더 잘 해나갈 때에 즉 현모양처라는 칭찬이 따를 때에

4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참조.

5 撰者未詳, 『東詩叢話』, “士夫家閨房之能詩賦 自有淵源 而如賤娼孽妾能詩者 尤可異也”

가능하다는 일관된 기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매헌 이씨가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보다 한시 창작을 우선시하자 가족들이 그의 작품을 외면하여 감추고 죄의식을 갖게 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부계기문(涪溪記聞)』) 또한 사대부가 부녀자의 경우 결혼한 이후에는 마치 글을 모르는 듯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한시를 지으면서도 감추고 문집이 있으면서도 없애버린 사례가 많다. 또한 『청비록(淸肥錄)』에서는 김성달(金盛達)의 부실 이씨가 어떻게 시를 짓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 시를 지을 수 없었는데 김성달이 죽은 뒤 그의 시고를 안고 삼 일을 곡하다가 홀연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단시 수백 수를 외우고 비로소 시를 지었는데 경구(警句)가 많았고 400자 내에서 변환이역(變換移易)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김성달의 부실 이씨의 경우는 시를 짓게 된 경위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서 기인한다는 매우 기이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대부가 여성이 한시를 창작하게 된 어찌할 수 없는 근거를 들이대고 여성의 한시 창작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대부가 부녀자와 소실 그리고 기생 사이의 존재기반과 삶의 경계가 얼마나 다른가, 이 차이가 문학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여 여성작가한시사를 서술해야 한다.

또한 시기(詩妓)가 전체 기생의 전체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기들이 사대부 남성의 언어로 시조, 한시를 짓고 자기 표현 기회를 갖기도 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전체 기생 사회에서 볼 때 특별한 경우였다. 따라서 기생의 한시사를 서술할 때 이들이 당대 기생 집단의 사회적 존재성을 대표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시기 역시 다른 기생들과 기억이라는 공적 임무를 지고 사적 기방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의 한시가 기생의 삶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생의 한시사를 서술해야 한다.

한편 여성의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에 대한 진위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 분야에서는 ‘여성작가의 창작’임을 논증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작품의 귀속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작가의 가사나 시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성 작가임이 밝혀진 가사나 시조의 경우 작가마다 거의 한 두 수 혹은 몇 수의 작품만을 남기고 있

어 여성의 내면을 견고하게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일기, 간찰 등 산문 기록 역시 여성의 문학과 삶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발굴 과정에 있다.

그런데 여성작가의 한시는 시조나 가사 등의 장르에 비해 작가의 귀속성이 분명하며, 한 작가가 수 백 수의 시집을 남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내면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복하여 들을 수 있고, 그 의식의 변화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다 깊이 있게 여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물론 여성의 시문집을 누가 편찬하였는가에 따라 수록된 글의 성격이 결정되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한시를 통해 직접 들려주는 삶과 내면세계는 분명 여성 자신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여성의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 속에 내재해 있는 계급적, 성적 타자로서의 시선과 욕망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두 수 혹은 몇 수씩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시조보다 한 작가의 내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한시 문집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여성의 작품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 자료 발굴의 한계가 있긴 하다. 하지만 매창, 담운, 운초 등이 상당한 분량의 문집을 남기고 있고 또 최근에는 남전⁶, 이구소⁷, 금선⁸ 등의 시문집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현재 개인 가장본들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문학사에서 사라진 여성작가와 그 작품의 윤곽 그리고 작가로서의 위치 등을 깊이 있게 그려볼 수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 드러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중세사회 전반에 대한 새롭고도 폭넓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팔선루집(八仙樓集)』은 2018년 11월 25일

-
- 6 정우봉, 「19세기 후반 대구지역 여성문인, 徐藍田의 생애와 문학」, 『대동한문학』 제30호, 대동한문학회, 2009, 387-418쪽.
 - 7 박영민, 「李鳳仙, 관기제도 해체기의 기생의 재생산과 사회적 정체성」, 『고전문학연구』 제34호, 한국고전문학회, 2008, 303-334쪽.
 - 8 박영민, 「琴仙,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 찾기」, 『동양한문학연구』 제30호, 동양한문학회, 2010, 235-268쪽.

KBS1에서 방송된 제1149회 「TV쇼 진품명품」을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된 필사본 유일본이다. 『팔선루집』은 월하(月荷), 동정춘(洞庭春), 상림춘(上林春), 월중매(月中梅), 옥호춘(玉壺春), 전춘앵(轉春鶯), 월하선(月下仙), 소운(小雲) 등 여덟 명의 기생이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와 이웃하여 살며 돈독한 벗이 되고, 팔선루(八仙樓)에서 수계(修禊)를 하고 시회(詩會)를 열며 “팔선회(八仙會)”라 칭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팔도에 있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흩어진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시를 지어 부치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담고 있다. 『팔선루집』은 조선시대의 기생의 우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까지 『팔선루집』과 같은 형태의 기생의 한시집은 발견된 예가 없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의 한시 창작 및 감상 활동이 현재 문집이나 작품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더구나 『팔선루집』에는 이들 여덟 명의 기생들 각각의 문집명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계획에 참여한 월하, 동정춘, 상림춘, 월중매, 옥호춘, 전춘앵, 월하선, 소운 등 여덟 명의 기생의 인적사항을 밝힌 좌목(座目)에서 월하의 『향사집(香史集)』, 동정춘의 『경호집(鏡湖集)』, 상림춘의 『채하집(彩霞集)』, 월중매의 『나부집(羅浮集)』, 옥호춘의 『죽창집(竹窓集)』, 전춘앵의 『교정집(喬亭集)』, 월하선의 『봉호집(逢壺集)』, 소운의 『금원집(錦園集)』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여덟 명의 기생의 문집명 뿐만 아니라 이 팔선회의 구성원들과 교류하였던 난옥헌(蘭玉軒)의 시집 『난옥헌고(蘭玉軒稿)』도 『팔선루집』의 부록으로 실제 붙어 있다.

또 팔선회의 막내인 소운의 연인이었던 미산거사는 “팔선이 지은 것들은 문집과 시고가 있는데, 혹은 두세 권이기도 하고 혹은 네다섯 권이기도 하여 교정을 하고 편집을 한 것이 심히 방대한 듯하다.”⁹고 하여 여덟 명의 기생의 문집과 시고의 양이 풍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팔선루집』은 이제까지 문학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기생 작가들, 기생의 한시, 기생의 문집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팔선루집』의 주인공인 여덟 명의 기생은 모두 개인 문집을 가진 시인들이었던 것이다. 『팔선루집』을 통해 기생 작가, 기생의 한시, 기생의 문집이 지

9 眉山居士, 「尾山子尾題」, 『八仙樓集』, “八仙之作, 自有集稿, 或二三卷, 或四五卷, 而校讎纂輯, 似甚浩汗.”

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성의 시문집이나 작품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작가한시사를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깊이 있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성한시작가나 작품으로 여성작가한시사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사라진 여성작가와 작품, 여성의 작가로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여성작가한시사의 윤곽을 개방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문집을 남긴 여성작가의 한시에도 작가의 의도와 달리 전승 과정에서 크게 오염이 된 경우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 한시 문집의 경우 텍스트 비평을 통해 비평본을 구축해야 제대로 된 문학사 서술을 할 수 있다.

김삼의당의 『삼의당고(三宜堂稿)』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삼의당의 시문은 필사본과 간행본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필사본은 박요순이 후손가에서 조사하여 영인·공개한 것이고 간행본은 1933년 광주에서 석인본으로 간행한 것이다.¹⁰ 공개된 필사본에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없다. 박요순이 “한지 백지 그대로를 표지 삼아 실로 묶은 가제본이었다.”고 하여, 애초에 제목이 없는 상태로 묶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본은 『삼의당고』라고 하였는데 이 간행본의 저본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삼의당고』의 필사본은 결본으로 앞부분은 낙질되었고 뒷부분은 필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 더구나 필사본에는 한시만 있고 산문은 없다. 따라서 필사본으로 삼의당의 시문의 전모를 고찰하기는 어렵다. 간행본은 한시와 산문이 모두 있어 필사본에 비해 완전한 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삼의당의 문학과 생애 연구는 대부분 간행본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삼의당의 시문집으로 전해지는 필사본과 간행본 두 텍스트가 어떻게 생성·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두 판본의 활용에 다른 해석이 도출된다.

10 본고에서는 현재 살펴볼 수 있는 필사본과 간행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필사본의 경우, 박요순(1985)의 부록에 실린 영인본을 대상으로 한다. 간행본의 경우, 許美子(1989)에 재수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 필사본과 간행본 소재 한시를 인용할 경우, 이 두 자료의 페이지를 밝힐 것이다.

삼의당의 문집의 필사본과 간행본을 비교하여 보면 필사본과 간행본의 필사자, 간행자의 의도에 의해 삼의당의 초고가 많이 오염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필사본과 간행본임을 알 수 있다. 『삼의당고』의 필사본은 1차 필사를 하고, 1차 필사에서 빠진 작품을 적절한 위치를 찾아 삽입하고 제목을 붙이는 2차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행본은 필사본에서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던 것을 연작시로 묶고 제목을 바꾸고 배열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사본과 간행본 모두 필사자와 간행자가 저자의 초고본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초고의 변형은 시의 배열, 시의 제목, 시어에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¹¹ 필사본과 간행본의 수록 작품, 작품의 배열순서, 제목, 시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필사본과 간행본의 배열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분명 같은 시인데 제목과 시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데 두 본을 비교하여 보면 『삼의당고』는 필사본이 삼의당의 초고에 좀 더 가깝고 간행본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이 많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삼의당의 초고에 가까운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재구성하고 이 점에 대한 과제가 수행된 뒤에야 김삼의당의 한시의 특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사본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간행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의당의 한시 연구를 전적으로 간행본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오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삼의당 연구는 거의 대부분 간행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독의 여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삼의당의 한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여성작가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삼의당을 18세기 후반의 빼어난 여성작가였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런데 삼의당의 생애나 한시 연구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삼의당의 시문집의 필사와 간행에 어떤 오염이 있는지, 여성의 시문집에 개입된 흔적을 지우고 오염된 부분을 걷어내어 원래의 저자의 원고에 가까운 비평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고

11 박요순은 필사본이 김삼의당의 초고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다. 그런데 필사본과 간행본의 생성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필사본은 삼의당의 초고라기보다 초고를 정리하며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난 뒤에야 삼의당의 작가 및 작품의 해석이 온당하게 진행될 것이다. 여성작가한 시문학사를 서술할 때에도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작가의 시문에 대한 진위논란은 이미 허난설헌에서 시작되어 임벽당, 이옥봉 등으로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성작가의 시문에 대한 진위논란은 있어왔다. 텍스트비평은 삼의당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의 시문 연구, 여성작가한시사 연구에서 필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의 문필 활동과 형식적 특징

신부용당(1732~1791)은 지금의 충남 서천시 한산면 승문동에서 태어나, 1750년 해남 윤씨인 윤운(尹憚, ?~1773)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낳았고, 60세가 되던 해 여름에 세상을 떠났다. 신부용당(1732~1791)은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의 누이동생으로 당대에 이미 기록(騎鹿) 신광연(申光淵, 1715~1788), 진택(震澤) 신광하(申光河, 1729~1796) 등 세 오빠와 함께 시문으로 명성이 있었다. 신광하가 “南國三申起, 西江二李鳴”¹²이라고 하여, 남쪽에서는 충청도 한산 출신인 자신의 3형제가 한양에서는 서강에 살고 있는 이승연과 이병연 형제가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들이라고 자부하였듯이, 신광수 3형제는 당대에 시문으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신광하가 이 자리에서 여동생인 부용당을 함께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부용당의 시문과 학식 역시 주변 인물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부용당의 시대 쪽 조카이자 부용당의 아들인 윤지눌(尹持訥)의 절친한 벗 정약용¹³은 외가쪽 5촌 당숙모인 부용당에 대해, “윤지눌 군은 일찍 아버

12 申光河, 「寄李台甫承延」, 『震澤文集』 409. 이하 신광하의 문집은 『崇文聯芳集』(탐구당, 1975)에서 인용하였다.

13 정약용은尹斗緒의 외증손으로 해남 윤씨가 외가이다. 윤두서의 넷째 아들이尹德烈이고, 윤덕렬의 딸이丁載遠에게 시집을 갔다. 정재원의 아들이 정약용이다. 윤두서의 셋째 아들이尹德薰이고, 윤덕훈의 아들이 윤운이다. 윤운과 부용의 아들이尹持訥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윤지눌(1762~1815)과 외가쪽 6촌 형제지간이고, 윤지눌의 어머니인 부용과는 외가쪽 5촌 당숙모 관계이다. 정약용은 윤지눌과 동갑으로 친밀한 교류관계를 맺었다. 형 정약전도 외가쪽 6촌 형제들인 윤지눌,尹持範,尹持忠 등과 긴밀한 우의를 나누었다. 정약용의 형제는 해남 윤씨뿐만 아니라 신광수, 신광하 등 윤지눌의 외숙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나누었다.

지를 여의었지만 신씨 부인이 본래 글을 잘하여 마치 소식과 소철의 누이와 같아서 이 때문에 가르침을 받들어 들은 것이 많았다.”¹⁴고 하여, 부용당이 일찍 아버지를 여윈 아들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조카 신석상은 고모 부용당의 문학에 대해 “문장에서는 한·위의 고시를 배웠으며, 그의 오언과 칠언은 한나라의 당산부인의 「안세방중가(安世房中歌)」의 유음이 있었다.”¹⁵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용당이 세 오빠의 문학 교육과 창작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신광수는 아들을 가르칠 때에 ‘文必秦漢. 詩必盛唐’을 기치로 하는 의고파를 기조로 하여 주로 당송 이전의 문학을 학습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신광수 가문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신광수 형제와 아들의 한시는 형식적으로는 장편고시와 악부를, 내용적으로는 옥대향림체의 연정적이면서 낭만적인 경향성을 뚜렷하게 표출하였다.¹⁶

현재 남아 있는 부용당의 한시 역시 율격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 잡언체나 고시체의 경향성을 보인다. 신광수 가문의 상고시대를 존송하는 문풍은 부용당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광수 형제와 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악부체는 부용당의 한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부용당이 오언과 칠언에서 한고조의 당산부인의 「안세방중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용당의 한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대부가 부녀자의 덕목을 구현하는 전아함을 구사하였음을 말해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광수 형제와 아들이 염정체나 옥대향림체의 한시를 다수 창작하여 분방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표출한 반면, 부용당은 사대부 가문의 여성으로서 일상의 규범을 지켜가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상을 구사하였다. 부용당은 한편으로는 오빠들의 문학적 경향을 따르면서 한

14 丁若鏞, 「司憲府持平尹无咎墓誌銘」, 『茶山詩文集』 16卷, “君蚤孤, 而申夫人故善文, 若二蘇之妹, 以此受提誨多聞. 其爲詩往往清警, 有乃舅風. 顧不屑屑治文墨, 亦散漫不收, 以故無所傳.”

15 申奭相, 「祭姑母尹夫人文」, 『大鹵遺稿』(문중가장본), “昔我祖考妣, 以德義教於家, 吾父兄弟三人, 以文詞震一世. 夫人以我祖考妣之少女, 興於三公之風, 於書, 讀『內則』·『曲禮』·『烈女傳』, 於文章, 學漢魏古詩, 其五七言, 有「安世房中」之遺音. 自以爲『芙蓉集』者, 亦且數卷.”

16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와 남인 문단의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이우성, 「진택의 시세계와 현실인식」, 『승문연방집』 출간기념강연요지, 1975;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1-552쪽

편으로는 오빠들과는 달리 전아한 사대부 가문 여성의 덕목을 시상으로 구현하였다. 다만, “신광수의 한시는 어렵지 않고 서정성이 짙으며 사실성과 낭만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호쾌하고 시원스러우며 화려하기까지 하다. 일상생활의 소소한 소재를 익살과 재치를 담아 읊기도 하여 읽는 재미가 있다.”¹⁷는 평가를 받았는데, 부용당의 한시에도 자신이 처한 일상을 때로는 발랄하게 때로는 담담하게 묘사하며 일상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점에서는 내용상에서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부용당은 사대부 사회의 부녀자로서 당대의 규범을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규범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중시하였다. 부용당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들도 사회의 규범을 일상 속에서 지켜가도록 촉구하였다. 부용당은 자신과 주변의 친인척이 함께 하는 삶을 추구했다. 부용당의 문학 세계는 그의 삶의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그의 문학 세계는 자신을 향하여 발로하는 한시와 주변의 친인척을 향하여 발로하는 산문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대부 사회가 규정한 규범을 일상에서 가치있게 여기고 실현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부용당의 삶과 의식 세계에 대한 재구성은 18세기 사대부가문의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때 더 잘 드러날 것이고, 부용당의 한시의 형식적 특질에 대한 연구 역시 여성 문인의 문학 수련 과정과 작품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때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여성작가 한시 문학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작가의 한시 문학사는 그들의 문학활동을 고려하여 구성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구성될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 예술 공동체의 모습과 그들의 패트론에 대한 이해가 여성의 한시 창작과 작품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낼 것이다. 조선후기에 있었던 여덟 명의 기생의 모임인 팔선회, 팔선회 구성원의 우정과 지향, 『팔선루집』의 구성과 편찬을 주도한 미산거사의 역할 등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팔선회의 의도와 지향이 잘 드러나도록 『팔선루집』을 편찬하는 데에 깊이 관여한 인물은 미산거사(眉山居士)이다. 그는 팔선 중 막내인 소운의 연인이었다.

17 박영민, 「신부용당의 삶과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8호, 2013, 411-444쪽

미산거사는 팔선회가 자신들의 우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적극 후원하였다. 또 그는 작가 팔선, 작품 『팔선루집』이 사람들에게 전승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후원을 하였다. 그는 『팔선루집』의 편찬과정에서 중요한 패턴 역할을 하였다. 『팔선루집』의 구성은 전반부는 계회시첩(稷會詩帖), 후반부는 연주시집(聯珠詩集)이 연상되도록 편찬된 기생들의 시집이다. 전반부는 사대부 남성들의 계회시첩 혹은 계회도가 담고 있는 내용과 형식을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의 편찬은 월하와 소운이 주도하였다. 후반부에는 마치 한 집안의 맏이부터 막내까지의 시집을 차례로 묶은 연주시집이나 세고처럼, 여덟 명의 기생 개개인의 시집에서 시를 뽑아 나이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팔선회의 막내 소운은 자신들을 “의리로는 벗이고 정으로는 형제와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말이 곧 이 시집 전체의 편찬방향과 통하는 듯하다. 후반부의 편찬은 미산거사와 소운이 주도하였다.

소운은 계회가 있던 날 그들 8인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밝혔다. 그들은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가볍게 화장을 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때에 맞게 만난다. 그리고 가볍게 술을 마시고 낭랑하게 시를 짓는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작품이 생기면 노래로 부르고 금으로 연주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그들이 스스로 가사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연주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멀리 후대까지 먼 곳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하였다. 즉 그들은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주하고 전파하는 것까지 가능한 예술가들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래와 연주가 한양의 선비와 여사들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더 멀리까지 전파되고 또 후세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하였다. 소운과 마찬가지로 팔선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영원히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기대하였다. 월하와 소운은 팔선회, 팔선회의 모습이 멀리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꿈꾸었다. 이때 소운은 자신들의 수계가 여성들의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지금까지의 유명한 계회는 모두 남성들이 행하였던 일이고 규중의 여성들이 행하였던 일이 아니었다. 난정회, 향산구로회, 동도십일기영회가 모두 그러하다. 그리하여 팔선의 수계는 이제까지 남성의 영역에 있었던 일을 여성들이 행하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다. 월하도 한양이나 시골의 남성들의 수계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모임의 의의를 부각하였다.

그리고 소운은 계획을 구성한 자신들의 동심(同心), 일심(一心)을 강조하였다. 팔선회의 구성원들이 호남, 패서. 관북 등 천 리 먼 곳에서 와서 만났다가 천 리 먼 곳으로 흩어져 살아가더라도 마음은 한마음일 것이고, 벗이지만 형제애를 나누는 사이일 것이며, 그 마음은 금석보다 무겁고 아교와 철보다 견고한 사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월하가 헤어지지 말고 한양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하였다면 소운은 비록 흩어져 살더라도 마음은 한 마음일 것이고 그 마음은 금석보다 무겁고 아교와 철보다 견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소운은 월하의 뒤를 이어 서문을 쓰며 현실을 고려하며 월하의 뜻을 이어받거나 확장하였다.

또 소운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뒷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인생을 꿈꾸었다. 자신들의 우정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서 즐거움을 함께 하고 죽을 때에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평소 깊이 사귄 사이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마음이다. 그런데 팔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후대에 알려지기를 원할 정도로 평소에 깊은 사귀음을 하였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운이 이 모임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운은 인생이란 가벼운 먼지나 약한 풀 같은 존재, 그래서 하루아침에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뒷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을 모를 터이니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이야기가 홀연히 사라지지 않고 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팔선회 작가들의 이러한 작가의식 이해는 조선시대의 여성 한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작가한시사는 여성의 문학활동을 함께 도출할 때 훨씬 더 풍요롭게 구성될 것이다.

4 여성 작가의 계층적 성격

한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여성 작가, 여성 한시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다. 특히 기생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출한 문인 기생과 그의 작품에 대한 감탄이 두드러졌을 뿐, 기생의 삶에 대한 사회사적 조망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

조선시대의 하위주체,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조선시대의 여성에 관한 제도와 관습, 문화와 경제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제도적, 관습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일상과 욕망, 예술 활동 해명을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 역시 그들만의 고유한 계층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 하에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층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 작가의 한시는 당대 여성의 신분을 구분하던 방식에 따라 사대부가 부녀자의 한시, 첩의 한시, 기생의 한시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신분이 한 여성의 삶과 사유 그리고 작품의 미적 특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한시에 능한 기생은 시기(詩妓)로 불렸다. 시재(詩才)는 기생의 공식적 존재 근거인 여악을 충원할 수 있는 전문 기예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생들이 문자를 다루며 사대부와 화운(和韻)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재는 공적 연회나 사적 기방 활동에서 사대부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자질이였다. ‘해어화’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기생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말’은 지배층 남성들의 언어를 가리킨다. 해어화는 지배층 남성들의 언어가 담고 있는 유교적 이념, 지적 능력, 교양을 이해하고 화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욕망까지 충족시켜주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기생 특히 시기의 입지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기생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층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기생의 문학은 그들만의 고유한 계층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 하에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기생은 대부분 모계로부터 천민 신분을 세습 받았으며,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를 져야 했던 특수 계층의 여성이었다. 또한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를 행하거나 생계를 위하여 사적으로 기방 활동을 하거나 기생의 활동에는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매개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기생이 행해야 했던 공적 의무와 섹슈얼리티의 활용을 비롯한 그들의 신분적 특수성은 그들의 문학적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기생의 고유한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왕조실록, 의궤, 노비문건 등의 공식적 기록뿐만 아니라, 기생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기생의 처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점은 기생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 여성 작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첩의 한시에 대한 연구에서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와 축첩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함께 진행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대부가의 처에 대한 한시 역시 성리학적 규범을 숙지하고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살아간 여성의 미덕을 밝히는 연구가 주된 경향일 뿐 사대부가의 처의 지위나 심리적, 사상적 갈등 등을 입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최근 문학 연구에서는 여성의 법제적·현실적 조건, 신분적·직업적 조건 등의 이중적 상황과 모순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더욱 심화시켜 여성 작가와 그 문학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여성 한시 문학사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한시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계층적 특수성을 고려한 서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여성의 계층적 속성과 함께 여성 개개인을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의 실질을 파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중세 문화 전반의 복잡다단한 리얼리티는 익명적 거대집단의 계층적 속성과 동일 계층의 평균적 존재형태를 탐구하고 인간 개개인의 모습을 배제하여 버리는 거대담론과 전체사적 흐름 아래서는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 오히려 개개인이 어떤 위기나 사건에 대처하여 어떠한 전략과 가치관을 보여주는지, 개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탐색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중세의 주체로서의 여성 개인, 그와 밀접한 관계망 속에 존재한 남성, 그리고 특정한 제도와 규범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간 문화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 한시 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작가의 한시를 섬세하게 읽고, 중세의 또 다른 주체로서의 여성, 그들과 밀접한 관계망 속에 존재한 남성, 그리고 특정한 제도와 규범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간 문화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조선시대를 살다 간 여성 주체가 경험한 제도와 문화 그리고 그에 당면한 내면의식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한시가 가장 풍부하면서도 거의 유일하다. 여성 작가의 경우 한시 외에 다른 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못하였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5 마무리

조선시대의 여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버려야 할 전통과 지키고 키워 나가야 할 전통을 균형감 있게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직접 기록으로 남기기 못한 여성의 역사적 실재를 고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관한 사적 기록과 공적 기록을 입체적으로 직조하여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균분상속, 윤희봉사, 호적제도 등 조선시대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속속 결실을 맺으면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여성의 역사와 그 전통에 대한 인식을 보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당대 여성들의 삶의 곳곳에서 나오는 자기표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성작가의 한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성 작가가 자기표현의 목소리를 직접 남긴 경우는 많지 않다.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남기지 못하고 담론화 과정을 거친 2차 자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라는 소수자 집단의 한시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 여성 한시 이해가 대부분 시화나 시선집, 필기와 잡록 등 남성의 담론 내부에 포획된 작품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텍스트 비평을 통해 남성 담론 내부에 포획된 여성의 작품을 세심하게 다각도로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시를 누가 어떻게 전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여성의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가려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허구성과 주관성이 개입된 문학 작품과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사료의 행간을 탐색하여 여성의 삶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과제 역시 여성작가한시사가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때에 여성 한시 작가 및 작품의 발굴은 여성 관련 자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작가한시사 연구는 앞으로 남성 사대부의 문집, 시화, 소총, 관찬 및 사찬 읍지, 실록 등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읽는 훈련을 통해 여성, 젠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여 여성작가한시사를 서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姜澹雲, 『只在堂稿』, 계명대학교 소장.
姜澹雲, 『只在堂稿』, 부산대학교 소장.
琴仙, 『琴仙詩』,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소장.
『八仙樓集』(개인소장본).
『淸吟』,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소장.
허미자, 『한국여성시문전집』, 국학자료원, 2004

단행본

-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1-652쪽.
박영민, 『19세기 문예사와 기생의 한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논문

- 김동준, 「여성문학의 전개와 여성의 목소리」, 『새 민족문학사 강좌』, 민족문학사 연구소, 창비, 2009, 405-424쪽.
김명희, 「여성 한문학의 연구사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0, 353-375쪽.
문희순, 「호서지역 여성한문학의 사적 전개」, 『한국한문학연구』 제39호, 2007, 85-116쪽
박무영,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제64호, 한국한문학회, 2016, 187-214쪽.
_____,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제28호, 2005, 79-118쪽
박영민, 「신부용당의 삶과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8호, 2013, 411-444쪽
_____, 「팔선회의 수계와 팔선루집의 편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133-163쪽.
박요순, 「삼의당과 그의 시 연구」, 『한남어문학』 제11호, 1985, 118-132쪽.
안대회, 「한시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제64호, 2016, 31-57쪽.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66쪽.

_____,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377-400쪽.

_____,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231-262쪽.

이종목, 「16-17세기 한시사 연구: 시풍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4호, 2000.

_____, 「조선후기 놀이문화사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제34호, 2018, 157-188쪽.

이혜순, 「19세기 여성비평문학의 출현과 그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55-80쪽.

정우봉, 「19세기 후반 대구지역 여성문인, 徐藍田의 생애와 문학」, 『대동한문학』 제30호, 대동한문학회, 2009, 387-418쪽.

최기숙,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2, 5-44쪽.

_____,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의-생산을 위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55-198쪽

Abstract

Suggestions for Women's Chinese Literature History

Park, Young-min

The feminist view, which began to emerge increasingly from the periphery of our culture in the late 20th century, is now being clearly verified by how valid the problem was at that time in various chapter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re are still a handful of researchers who search for data in this field and seriously explore methodology, and the field of research is limited to some categorie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Chinese literature. In particular, the research of female Chinese poems is more dwarfed by other genres of research such as novels, lyrics and sijo. This is because previous Chinese studies did not recognize that intensive treatment of Chinese poems by female authors was a very effective and productive study. It is true that the female writer's Chinese

poems are significantly less in the amount than the male writer. But the significance of Han Shi, a female writer,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gauged by the current amount of her poems. Chinese poetry is the genre most actively chosen by medieval subjects when they want to express their sentiments and reasons in writing. Thus, the life and culture of people living in time and space of the Middle Ages are revealed in abundance. In order to make women's history and perception of their traditions more balanced, they first need to observe the lives and inner consciousness of women of the time. At this time, Chinese poems by female writers are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subjects. Going forward from the study of female writer Han Shi, building up the history of female writer Han Shi literature can create the right restoration of women's history and a proper and efficient understanding of women's literature.

Key words: Women's Chinese poems, history of literature, women's literature, and text reviews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